

심판진과 이야기하는 김경문 감독

등록 2025.10.18 15:26:27



[대전=뉴스시스] 김진아 기자 = 18일 대전 중구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포스트시즌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, 3회초 무사 1,3루 삼성 구자욱 타석 때 한화 폰세의 투구 인터벌이 길어지며 신경전이 펼쳐지자 한화 김경문 감독이 심판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. 2025.10.18. bluesod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